

석사학위논문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심방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평가
- 존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와 비교하여 -

계명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윤은수

지도교수 황재범

2002년 12월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심방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평가
- 존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와 비교하여 -

지도교수 황 재 범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12월

계명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윤 은 수

윤은수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오 우 성

부심 황 재 범

부심 허 도 화

계명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년 12월

감사의 말씀

이렇게 학문연구의 기회를 주시어 미력하나마 한국교회를 위하여 작은 정성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본 논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아낌없이 보살펴 주시고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길을 허락해 주신 지도교수 황재범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아 주시고 학문에 열의를 갖도록 도와주신 오우성 교수님, 더 나은 논문이 되도록 지도해 주신 허도화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곁에서 격려와 용기를 주고,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랑하는 아내 송미영 님께 사랑의 마음과 함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늦게 오는 아빠를 늘 항상 기다려 주던 사랑하는 딸 영인 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학문연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고 염려해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가선교회 모든 교우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로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하는 부모님 윤성필 님과 박정화 님, 그리고 장인어른 송상준 님과 장모님 백수학 님에게 이 기쁨과 감격을 드리며, 줄고가 한국교회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 116:12)

2002년 12월

윤 은 수

目 次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3. 선행연구의 평가	4
II. 심방의 정의와 목적	6
1. 심방의 어원	6
2. 심방의 정의	7
3. 심방의 목적	8
III.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	10
1. 칼빈의 교회관	10
2. 목사와 심방	12
3. 장로와 심방	15
4. 요약	17
IV.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심방의 변화와 평가	19
1. 해방이전의 심방	19
1) 한국의 샤머니즘이 심방에 끼친 영향	19
2) 선교사들의 심방	20
3) 한국목회자들의 심방	23

4) 심방대원과 모양	26
(1) 전도부인의 활용	27
(2) 권찰제도와 구역제도의 도입	28
① 구역제도	28
② 권찰제도	29
(3) 장로의 심방	29
(4) 심방받는 가정의 준비	30
5) 대심방	31
(1) 대심방의 흔적들	31
(2) 평양신학교에서의 대심방에 대한 가르침	35
2. 해방이후로부터 80년대 이전의 심방	36
1) 해방 이후의 대심방	36
2) 전화심방의 등장	37
3) 유고심방에서 상담심방으로의 전환	38
3. 80년대 이후의 심방	39
1) 대심방의 쇠퇴	39
2) 방문심방의 위기	41
3) 상담목회와 상담실의 운영	42
4) 인터넷의 보급과 사이버심방의 등장	43
4. 21세기의 심방에 대한 전망과 평가	45

1)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심방의 보편화	45
2) 찾아가는 심방에서 찾아오는 심방으로의 전환	46
3) 심방목회에서 교육목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47
5. 요약	48
V. 바람직한 심방의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제언	50
1. 노회의 개체교회에 대한 감독권의 강화	50
2. 주일설교의 성경공부교재로의 활용	51
3. 장로의 돌봄의 사역의 확장	52
4. 정기적인 심방계획의 수립	53
5. 권사와 권찰의 심방강화	53
6. 구역예배를 통한 심방목회	54
VI. 결론	55
1. 내용요약	55
2. 제언	56
참고 문헌	58
영문 초록	62
국문 초록	64

표 목 차

<표 1> 인터넷상에서 교인을 심방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45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심방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심방의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화를 종교개혁자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와 비교 평가하면서, 차이점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에 대한 바람직한 심방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심방은 교인을 관리하고 선교하는데 필요한 목회의 한 방법으로서 한국교회의 성장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초대 교회사에서 선교사들의 선교가 곧 심방의 형태를 띤 모습에서 시작을 하였기 때문이다. 구한말의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밀하게 방문하는 가정 심방을 통하여 이루어진 안방선교였다. 이와 같은 안방선교가 선교상의 기적을 낳게 되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목회자들의 부지런한 심방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올바르게 양육 받고 자라나서 든든한 한국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된 것이다.¹⁾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심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적어지는 느낌이다. 물론 첫째는 시대의 다변화에 따라서 교인들의 의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지만, 목회자들 스스로도 심방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

1) 옥성득, 『‘한일합병’ 전후 최병헌 목사의 시대 인식』,

<http://user.chollian.net/~ikch0102/nm13-3.htm>

본 글에서 옥성득은 심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904년 샤프목사는 “우리의 한국인 목사 최병헌은 훌륭하게 사역하여 자기 백성의 신실한 목자로 증명 받았다. 나는 그와 함께 각 가정을 심방 하였는데, 이런 종류의 일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한국 초기 교회에 있어서 가정 심방(尋訪)이 목회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각한다. 그래서 칼빈이 의도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세워 가는 심방이 아니라 교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위로하는 데만 그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이다. 전화심방으로부터 비롯하여 사이버 심방까지, 점점 더 심방의 본래 의도는 사라지고, 목회적인 편리함만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의 시대를 심방의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교인들도 심방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한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심방이 힘들어 지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목회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심방을 기피하고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성희는 “한국교회의 목회는 새벽기도회, 심방, 설교 등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었으나 이러한 목회 패러다임은 제3천년에 이르러서는 그 적용력을 상실한다”²⁾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심방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편리함만을 추구하다가 실제 중요한 심방의 목적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도 무관심한 한국교회에서의 심방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오늘날 변해 가는 심방의 패러다임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과연 심방의 본질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점의 극복이 오늘 정체된 한국교회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의 이 연구가 심방의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멀어지는 교인과 목회자와의 관계를 좁히며 심방을 통한 교회부흥의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한국교회에서 도외시되었던 심방의 변천사를 연구하고, 한국교회의 심방의 패러다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바람직한 심방의 패러다임을

2)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14.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6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은 심방의 정의와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심방의 어원을 살펴보면 심방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시대적 상황을 따라서 심방의 방법은 변하겠지만, 결코 심방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방의 정의와 목적을 살펴보면서 심방의 본질을 이해하므로, 한국교회의 심방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 III장은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한국교회의 심방을 살피기 전에 칼빈의 심방을 먼저 살핀 이유는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가 한국교회의 심방의 패러다임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한국교회에 올바른 심방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 IV장은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심방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심방의 내용과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왔는지를 살펴면서 오늘날 변화된 한국교회의 심방이 본래부터 있어왔던 한국교회의 심방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와 비교하여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방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 V장은 바람직한 심방의 패러다임 형성을 위하여 제언을 하였다. 필자는 한국교회의 심방을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심방의 본질로 돌아가서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심방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지도록 몇 가지 심방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제언을 하였다.

제 VI장은 이 연구의 종합적인 요약으로 결론을 내린다.

본 연구는 심방의 역사적 분석을 통한 심방의 올바른 패러다임의 형성에 대하여 접근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심방의 역사적 분석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형편이다 보니 자료가 빈약하였지만, 주로 문헌 연구 방법을 선택을 하였고, 특히 개 교회의 교회사와 당회록, 그리고 각 지방교회사기와 증인들의 녹취등을 통

하여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방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칼빈시대 제네바 목사회 회의록을 참조하였다.

3. 선행연구의 평가

심방을 한국교회사적인 면에서 연구하고 고찰한 논문은 흔하지 않다. 대부분의 논문들은 오늘날 행해지는 심방의 의미와 내용만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 신홍교회 전종근 목사는 그의 논문 “심방이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³⁾”에서 한국교회사적인 면에서 심방의 태동을 사랑방선교에 두고 있으나 선교사들의 심방이 어떠한 신학적, 역사적 배경 하에서 한국교회에 접목이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연구가 빈약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교회의 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에 대한 이해와 연구와 비교가 부족하고 단지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심방의 연구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다. 박정환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 “교회에서의 심방의 역할과 심방 지도자론⁴⁾”에서 한국교회에서의 심방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성장의 큰 요소로 심방을 논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한국교회에 심방을 전수한 선교사들의 심방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 근거를 논하지는 못하였다.⁵⁾ 또한 고려신학대학원 학장을 지낸 허순길 박사는 그의 저서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⁶⁾”에서 개혁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심방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칼빈이 의도한 목사의 심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장로의 심방을 비롯한 교회의 심방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었고, 그 심방을 통하여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얻고자 한 것이

3) 전종근, “심방이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월간목회』 통권 164호 (1990, 4): 259-320.

4) 박정환, “교회에서의 심방의 역할과 심방 지도자론,” 호남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원 박사학위논문, 2000년.

5) *Ibid.*, 17-19.

6) 허순길,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 (서울: 총회출판국, 1994).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미약하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심방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와 논문들은 교회사적인 연구가 약한 편이며, 특히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는 연구가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칼빈시대에 칼빈이 이해하고 실행한 심방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와 비교하여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심방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심방은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한국교회의 마이너스성장에 대한 위기에 심방도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곧 목회에 있어서의 심방의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심방의 올바른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곧 올바른 목회의 패러다임의 형성까지 이어져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심방의 정의와 목적

1. 심방의 어원

심방의 어원을 살펴보면, 히브리어의 「파카드」(방문하다, פָּקַד)라는 용어로, 70인역에서는 「에피스케포」(ἐπισκέπο)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감독, (에피스케포스, ἐπισκόπος)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므로 '방문하다' 혹은 '돌아본다'는 뜻이 된다.⁷⁾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를 자세히 음미해 본다면 심방의 개념은 목회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심방의 핵심적인 의미는 관심을 가지는 '돌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 시대의 한국적인 심방과도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을 두드리고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 방문하는 방법은 본래 성서적인 심방과 동일한 형태는 아니다. 성서의 심방은 단순한 가정심방의 차원이 아니라 돌보는 행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성서가 강조하는 점이 오늘날의 가정심방에 있어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성서의 의미는 단순히 집을 방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개념⁹⁾이 들어 있는 것이다.¹⁰⁾

7) 창 50:24-25; 출 4:31; 룰 1:6

8) 한학수, "한국교회 행정의 발전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학위논문, 1985, 12-21.

9)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에서는 단순히 집을 방문하는 개념이 아니라 충분한 돌봄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에서도 목자로서의 돌봄의 사역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구체적인 은혜를 일컫는 말이다.(참조: 창 50:24-25, 출 4:31, 룰 1:6)

10) J. E. Adams, 「성공적인 목회사역」, 정삼지 역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9), 79.

목자가 돌본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같이 때로는 양떼들의 상처를 고쳐주며 그들을 간호하고,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야단을 하며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심방은 단순히 가정을 방문한다는 의미에서 진보하여 돌보고 훈련시키는 영적 지도력의 발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¹¹⁾

오윤표는 영어의 심방의 의미 속에는 단순한 방문(visit)이 아니라 방문에 덧붙여 상담(counseling)과 문제해결(solution)의 행위까지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방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만나 교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돌봄의 사역'을 수행하며 목회의 책임을 지는 행위이요, 중요한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¹²⁾

2. 심방의 정의

일반적으로 심방(尋訪)이라는 용어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통 방문이라고 하면 평범한 일상생활의 용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선정하여 만나는 행위를 말한다면, 심방이라는 용어는 목회적인 차원의 용어로 목회자가 교인을 몸소 찾아가거나 만나서 신앙의 유의 됄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이다.¹³⁾ 다시 말해서 심방이란 용어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 받은 심방자(교역자)가 피심방자(교인)의 생활 현장에 찾아가 예배와 상담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며, 치유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¹⁴⁾

따라서 심방이란 목회자 혹은 심방보조자(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 교사 등)가 교인을 찾아보는 목회의 중요한 책임 있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 교역자가

11) 박정환, *op. cit.*, 9.

12) 오윤표, 「심방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9), 14.

13) 주인정, 「현대목회심방」 (서울: 교문사, 1984), 103.

14) 박근원, 「목회심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0.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훈련하여 신앙 성장에 유익을 가져오게 하며, 교회의 부흥을 꾀하는 행위이다.¹⁵⁾ 그래서 심방은 단순히 교인을 만나 담화하거나 교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심방을 통해서 목회자가 교인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위기와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훈련하고 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3. 심방의 목적

심방은 단순히 목회자가 교인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심방자인 목회자와 피심방자인 교인 사이에 분명히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심방의 중요한 목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인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돌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교인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들의 가정에 기쁨을 주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구체적인 돌봄의 사역인 것이다.

심방은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의 한 방법으로서 목회자가 교인들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 찾아가 삶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¹⁶⁾

또한 심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간 방문의 영광을 성찰하고 잃은 양을 찾으며, 죄를 구속하고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심방에 의해서만이 목사는 현 시점에서 양떼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고, 그 지식을 토대로 영적인 상담을 하며, 또한 올바른

15) 오윤표, *op.cit.*, 13.

16) 박근원, 『교역의 전문화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출판부, 1985), 251.

신앙생활로 인도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오덴(Thomas C. Oden)은 심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목사는 심방에 의해서 교인들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영적 상담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며, 심방을 통해서 교도의 지속적인 목회적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심방을 통해서 설교의 통찰을 얻을 수 있고, 교인에게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돌봄을 줄 수 있는 것이다.¹⁷⁾

결국 목회자는 심방을 통하여 교인과 만나 사귄을 갖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 그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치유하고, 도와주며, 격려하는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며, 목회자가 교인을,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돌보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심방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17) Thomas C. Oden, 『목회신학』, 오성춘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87), 340.

Ⅲ.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

한국교회의 심방을 논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해한 심방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선교를 시작한 교단의 대부분이 칼빈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장로교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초기에는 선교사들이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을 피하고 선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교지를 분할하였는데, 미국 남장로교는 전라도와 충청도, 호주 장로교는 경상남도, 캐나다 선교회는 함경도, 북장로교는 평안도, 황해도 및 경상도를 전담 선교구역으로 정하였다.¹⁸⁾ 그리고 감리교회는 주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맡았었다. 이렇게 한국선교의 대부분을 장로교회가 담당하다 보니 한국 교회 전체에 칼빈의 영향이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심방의 배경에는 칼빈주의를 신학적 배경으로 하는 장로교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칼빈주의의 영향이 지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본국에서 심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실천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미국과 호주의 장로교회사에 대한 좀더 폭 넓은 연구와 이해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 또한 중세 종교개혁시대의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심방의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와 비교와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1. 칼빈의 교회관

칼빈은 신학자이기 이전에 목회자였다. 그래서 그의 교회관에서도 보면 “기독교 강요” 제4권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요약

18)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4), 91.

을 하였다. 그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무지하고 나태한 속성이 있는 고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생겨난 후, 그 신앙이 점점 돈독해지고 목적을 향해 가는 데에는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¹⁹⁾고 함으로써 어떠한 사람도 교회의 보살핌에 끊임없이 그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이었다.²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 가기 위하여 믿음의 양육을 할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교회는 믿음의 양육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²¹⁾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보살핌으로 말씀과 성례전을 중요시하였으며, 거기에 성도의 훈련을 더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모든 교인들에게 신앙의 고백뿐 아니라 일정한 도덕생활의 표준을 요구하였다. 인간의 최대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신자들로 하여금 발견케 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도덕의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²²⁾ 이것이 교회로 인하여 행해져야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칼빈은 교회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보았는데, 특별히 세상에 속한 유형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되어야 할 것이요, 둘째는 사도적 초대교회의 모범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감독원을 두고 일반인들의 도덕생활을 감독 지도케 하였던 것이다.²³⁾ 이러한 칼빈식의 신앙개조와 신앙적 훈련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제네바 사람들은 칼빈을 추방하여, 한때 칼빈은 독일 스트라스박에 있는 친구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의 초청으로 피난민들을 위한 목사로 그

1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 1.1. tr. 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이 책은 앞으로 Inst.로 표기함.

20) 이오갑, “교회론,” 『칼빈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유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34.

21) 이근삼,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28-29.

22) 김희보, “목회자로서의 칼빈(中),” 『파수군』, 통권149호 (1964): 18.

23) 김희보, “목회자로서의 칼빈(下),” 『파수군』, 통권 150호 (1964): 14-15.

곳에 좌임 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다.²⁴⁾ 하지만 칼빈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평생을 바쳐서 수고하였다.

2. 목사와 심방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1절을 근거하여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으로 목사와 교사 그리고 장로, 집사를 규정하였다.²⁵⁾ 칼빈은 목사와 장로를 같은 장로로 구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장로를 평신도로 보는 반면에 분명히 목사에게는 장로와는 구별되는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졌다고 가르친다. 칼빈은 “목사나 박사들이 없다면, 교회의 통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²⁶⁾ 칼빈은 1537년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한 신앙교육 요강 및 신앙고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례들이 인간들의 봉사들 통해 우리에게 시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백성들에게 순수한 교리를 가르치고 성례들을 거행하며 좋은 모범을 통해 사람들을 거룩하고 순수한 삶으로 훈련시키는 임직된 목사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 훈육(discipline)과 질서를 경멸하는 자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들은 분파주의자들처럼 그러한 영적 직무가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탈해 버린다. 주님께서 언젠가 증언하신 말씀은²⁷⁾ 실로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 즉 주님께서 보내신 목사들이 영접을 받을 때 이것은 주님자신이 영접을 받는 것이요 저들이 거

24) 김희보, “목회자로서의 칼빈(上).” 『파수군』 통권 148호 (1964): 13.

- 칼빈의 좌임은 1938년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 제네바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교회는 카톨릭의 세력에 다시금 인멸하게 되자, 이 일을 수습할 자는 칼빈 밖에 없다고 단정짓고 칼빈을 데려오게 된다. 이것이 그가 떠난 3년 뒤인 1541년의 일이었다. 그후 그는 제네바에서 전후 20여년간의 목회자의 생활을 하게 된다.

25)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수원: 합동 신학대학원 출판부, 1997), 233.

26) John Calvin, 『신약성경주석(에베소서)』, 존 칼빈 성경주석 편찬위원회, (서울: 성경교재간행사, 1993), 336-340.

27) 마 10:40; 눅 10:16.

절을 당할 때 주님자신이 거절을 받는다는 것이다.²⁸⁾

방금 언급한 것처럼 칼빈은 목사직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말씀과 성례전을 들고 있다.²⁹⁾ 오늘날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할 시간까지 내어가면서 심방을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다.

칼빈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사역의 근본이요,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데, 이 말씀이 나타나는 또 다른 한가지의 형태가 성례의 집행으로 보았던 것이다.³⁰⁾ 그리고 이 말씀이 나타나는 또 다른 한가지의 형태로 성례의 집행과 더불어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훈련의 한 방편으로 심방을 이해하였던 것이다.³¹⁾ 칼빈은 말씀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온전한 성례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들은 교인 각자를 돌보아야 하며,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훈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³²⁾ 이것이 칼빈이 이해한 심방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칼빈이 이해한 심방은 오늘날처럼 위로하고 단순히 교회를 제대로 출석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심방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며 훈련시키는 역할까지 심방에 포함하였던 것이다.

목회란 결국 설교와 함께 설교자나 장로들이 각 개인에게 찾아가서 대화의 형태

28) John Calvin, 『갈뻥의 요리문답』,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5), 91.

29) Inst., IV. 3:4

30) 김재성, “목회사역과 성령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목회적 교훈들,” 『신학정론』 통권 25호 (1995): 345-346.

31) 칼빈은 신자들을 철저하게 교육하여 종교개혁의 순수교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자 힘을 다하였다. 그래서 그는 직접 교리문답서를 만들어서 신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32) Inst., IV. 12:2

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볼 때에 칼빈의 심방은 말씀을 통한 성도에 대한 훈련의 연장선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감독의 개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심방을 통한 목사의 감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1544년 제네바 시의회에 ‘교인 심방에 관한 규정’을 제출했고, 1546년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역교회의 심방법령’ (Order of Visitation of the Country Churches)으로 공포하게 되었다. 이는 사실 제네바 공화국의 국가적 행사로 사법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심방단의 구성은 시의회에서 2명(평교인)³³⁾, 제네바 교회 목사회(노회의 성격)에서 2명(목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심방단은 오늘날 우리의 관례와 같이 특정교회의 교인들을 심방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노회)의 교회들의 대표적 교인들을 심방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심방단이 한 일은 심방하는 가족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가 과연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한 그 가족이 과연 어떻게 신도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³⁴⁾ 하지만 칼빈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심방 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1542년 전염병이 제네바에 만연하였을 때, 의회에서는 병자를 심방 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비데에게 말하기를 병에 걸린 목회자의 직임을 자신이 대신 하겠다고 자청하기도 했다.

전염병은 더욱 심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거의 다 희생하고 맙니다. 우리 동역자 중 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병자심방을 전담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도움을 가장 요구하는 그들을 실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 의무를 다한다면 교회전체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33) 이 때의 시의원은 장로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의원은 12명이었는데, 2명은 소위원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4명은 60인 위원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6명은 대위원회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시장에 의하여 장로직에 임명되었다.

이종성, 『칼빈』 (서울: 장로회 총회교육부, 1983), 46.

34) Philp E. Hughes. (ed. and tr.),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칼빈시대 제네바 목사회 회의록) (Grand Rapids: Eerdmans, 1966), 82.

목사직에 있는 한, 만일 우리가 전염될 것이 무서워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무를 동한히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³⁵⁾

이와 같이 칼빈도 목사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과 아울러 말씀이 그들의 생활에 적용이 되도록 언제나 돌아보며, 또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목사의 직무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다.

3. 장로와 심방

칼빈은 장로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들의 직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감독하여, 그들 보기에 빛나가고 있거나 무질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훈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 자신이, 그리고 나서 다른 이들과 협의하여 형제에 적인 교정을 부과하는 것이다.³⁶⁾

칼빈은 장로들의 사역을 말씀사역이나 성만찬 집례가 아니라 주로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을 감독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로자신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여기서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다.³⁷⁾ 다시 말해서 칼빈은 장로제도를 통하여 목사의 심방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장로는 목사를 돕는 평신도였다. 장로는 다만 목사와 더불어 규율을 시행하고, 그들의 교회에 머물게 하며, 또한 무법한 자를 방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이었다.³⁸⁾ 1541년 1월 2일의

35) T. H. L. Paker, *Calvi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87.

36) John Calvin, "The Genevan Confessio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by J. K. S. Rei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63.

37)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19.

38) W.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200.

시민총회에서 비준된 제네바 공화국 교회의 기본법에 밝혀진 교회 조례의 장로에 대한 직무는 바로 신자들의 생활을 감독하는 것이었다.³⁹⁾ 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매년 모든 가정을 심방 하였고,⁴⁰⁾ 목사와 함께 장로들은 매주 목요일에 만나서 교회의 현상문제와 치리 문제를 의논하였다.⁴¹⁾ 이렇게 칼빈은 성도들의 윤리생활을 감찰하기 위하여 평신도 중에서 제네바 회원인 사람들을 각 교구에 몇 사람씩 두게 되는데 구역에 편성된 장로들은 자신이 맡은 구역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의 교인을 제네바 의회에서 처리케 하고, 수찬정지를 하게 하였다.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⁴²⁾ 제네바시의 모든 구역마다 한 두명의 장로가 있어 영적인 문제들을 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자주 행패를 부린다면, 아무개가 자신의 아내를 구타한다면, 아니면 유부남과 유부녀가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을 본다면, 아니면 그들은 형제의 예를 갖추어 그들을 훈계하였다. 만약 반응이 시원찮을 경우 그들은 그 문제를 장로회(Consistory)에 보고하게 되며 장로법원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소환하여 권면하였다. 만약 이것도 소용이 없으면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출교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회개할 때까지 유지하게 된다.⁴³⁾ 그리고 목사들이 장로들을 대동하고 그 구역의 가정을 심방 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였다.

오늘날에도 교회정치에는 장로의 직무에 관하여는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곧 칼빈의 교리와 개혁주의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다.⁴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무 중에서 심방의 의무는 소

39) Philip.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ol. 8.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5), 13장 104절.

40) *Ibid.*, 373.

- 목사와 장로는 이 체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도시를 세 구역으로 분할하였다. 성베드로 교구, 막달렌 교구, 성 저베 교구인데 칼빈은 성 베드로 교구를 담당했다.

41) *Ibid.*, 372.

42) 이종성, *op. cit.*, 46.

43) *Ibid.*, 130.

44)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195.

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 심방은 대개 심방담당 교역자나, 담임목사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칼빈의 교리를 따른다면 구역을 맡은 장로가 먼저 심방 하여 그 사정을 목사와 당회에 아뢰어 필요한 경우에 목사가 심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순서인 것이다. 그래서 칼빈의 경우에 목사의 경우에는 특수심방을, 장로의 경우에는 일반심방을 맡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4. 요약

앞에서 살펴본 대로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과 같은 단순한 방문심방이 아니라 권고와 훈련과 감독의 성격이 더 짙었다.

그렇다고 이 칼빈의 심방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자 한 심방은 아니었다. 칼빈의 심방은 말씀을 전한 자가 말씀을 들은 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감독하고, 훈련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직접 목사들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자 심방단을 조직하여 목사들과 목사가 속한 교인들을 돌아보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장로의 심방에 대한 참여이다. 장로의 심방에 대한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구역을 맡은 장로들이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 결과를 목사에게 보고하여 함께 교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나아가는 것이 칼빈시대의 장로의 심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현재 교단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잘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회정치」, 제 6장 제 47조, 장로의 직무참조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②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③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④교인을 권면하는 일, ⑤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⑥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⑦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⑧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그래서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들은 설교와 교훈을 충분히 인식하고, 나가서 과연 실생활에 적용하여 살고 있는가를 살피고, 자기들의 일반적 교훈이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각 가정에 가서 훈계도 하고, 격려도 하며, 그래도 충분하지 못할 때는 교회에까지 가지고 와서 권고하며 지도하고자 했던 것이다.⁴⁵⁾

이렇게 칼빈의 심방은 훈련의 개념이 짙은 목회사역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다하고자 하는 돌봄의 사역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 계속되는 심방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감독적인 성격을 잃어가고 있기에 그 문제에 심각성을 두고 위기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변화는 말씀을 전하기는 하여도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한 목회사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한국교회에 올바른 심방의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45) Inst., IV. 12:2.

IV.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심방의 변화와 평가

1. 해방이전의 심방

1) 한국의 샤머니즘이 심방에 끼친 영향

심방의 사전적 의미는 방문하여 찾아본다는 뜻이다.⁴⁶⁾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심방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심방은 단순히 상담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그 가정이 갖고 있는 가장 은밀한 흥금과 접하게 되는 것으로 그 흥금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드는 봉사정신을 가진 종교의 사제와의 만남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역사 속에서 실제 종교의 사제 역할을 하였던 무녀가 그의 단골집을 매년 춘추로 찾아 다녔던 것처럼, 한국교회에서는 춘계, 추계 심방을 실시하는 것에서 서로의 관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임신, 출산, 약혼, 결혼, 회갑, 생일, 병고 등,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축하하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한국적 미풍으로 승화되었다고 본다.⁴⁷⁾

이창근은 그의 저서 한국사회와 종교에서 무속신앙이 기독교화 한 것 중의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1) 각종 대형집회 추구성은 샤머니즘의 부락제와 병행한다.
- 2) 매머드 호화성전건축은 본 개인의 몸주를 모시기 위한 성황당, 당산 설립과 유동한다.
- 3) 신유은사를 내세우는 예배는 병을 치유하기 위한 병굿으로서 치병제와 같다.
- 4) 축복만을 내세우는 예배는 재수 굿으로서 기복제와 같은 것이다.

.....

46) "심방,"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1), 1290.

47) 주인정, 『현대목회심방』 (서울: 목양사, 1984), 101.

- 11) 제액을 물리치고 부자 되어 장수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샤머니즘의 중심목적과 다를 바 없다.
- 12) 성전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성미표, 헌금 징수표, 그리고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헌금 영수자의 명단이 복을 받는다는 기준으로 쓰고 있다면 이는 부정과 동일한 것이다.
- 13) 신격화된 목사는 신들렸다는 무당과 같다.
- 14) 심방시 헌금의 강제성을 띤 요구는 푸닥거리하고 복채를 받은 것과 병행한다.
- 15) 샤머니즘이 현세 지향적인 것은 한국의 기독교 현상과 유사하다.
- 16) 신령한 목사만을 찾는 것은 용한 무당만을 찾는 것과 유사하다.⁴⁸⁾

물론 이 말들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적인 모습 속에 무속신앙의 그림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초기 선교 때부터 이러한 미풍양속이나 무속신앙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심방에 익숙해져 있던 민중들이 자연스럽게 선교사의 심방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선교초기의 사랑방 선교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한국교회초기에 있어서 심방을 주로 하는 심방중심의 목회사역이 자리를 잡아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선교사들의 심방

선교사들을 통한 한국교회의 성장과정을 보면, 첫째는 환경조건 순응책으로 정치와 고위 인사와의 접촉으로 안면이 익혀져 인간적인 가까움에서, 두번째로 간접적인 복음전도로 교육사업, 자선사업을 통하여, 세번째로 성서번역이나 문서전도의 방향으로 돌리고, 네번째로는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산 전도가 되었고, 다섯번째로는 순회전도가 단계적으로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⁴⁹⁾ 그리

48) 이창근, 『한국사회와 종교』 (서울: 도서출판 엘멘, 1990), 58-59.

49) 이호운, 『한국교회초기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131-132.

하여 교회를 세울 때도 개인전도를 통하여 힘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사랑방전도에서 안방전도까지 들어갔으며, 장(5일장)날마다 활용하는 노방전도로까지 육성발전이 된 셈이고 시장제도에 편승한 복음전도의 활용이 컸다고 보는 것이다.⁵⁰⁾

초기 선교사들은 선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였다. “처음 시에 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 때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15전의 월급을 주기도 했다”⁵¹⁾고 전하고 있다. 많은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랑방을 통한 심방전도였다. 한가한 시절에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 담소도 하고 옛 소설도 읽게 된다. 선교사들은 즐겨 사랑방을 찾아가서 전도하였다. 사실 공적인 선교활동이 금지되었던 구한말에 은밀하게 방문하는 가정심방은 곧 안방선교였던 것이다.⁵²⁾ 한국선교의 초기 선교사중 한 명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도 한국에 도착한 뒤에 약 2년 동안은 한국 주재 미국 공사관 공의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파송되어 의료선교를 겸하여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알렌 선교사 밑에서 일을 하며 한국어를 배우다가 공공연한 공개선교정책보다는 조용한 접근인 사랑방 선교를 통해 선교를 시작했다.⁵³⁾ 노도사가 맨 처음 언더우드의 사랑방선교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고(1886년 7월 11일), 1887년 9월 27일에는 사랑방 결신자 14명이 새문안교회를 세웠다.⁵⁴⁾

이렇게 초기 선교사들은 사랑방선교라는 독특한 형태로 선교를 시작하였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심방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선교사들은 전도와 심방에 열정을 가지고 하였는데 한 선교사의 일지에 보면 ‘그 동리의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안방으로 영접하여 구경을 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

50) 전종근, “심방이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월간목회』 통권 164호 (1990): 264.

51) 김충남,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생애』 (서울: 백합출판사, 1971), 93.

52) 백낙준, 『한국개신교회사』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73), 170-171.

- 초기 선교에서는 공개전도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남자선교사들은 “사랑방”을 통하여, 여자 선교사들은 “안방”을 통하여 전도심방을 하므로, 심방이 중요한 선교적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53) 『서현 90년사』, 광주서현교회 90년사 편찬위원회 (광주: 삼일인쇄사, 1998), 68.

54) *Ibid.*

치니 1년 동안에 복음을 들은 자가 1,855명이요, 심방한 조선집이 80이나 되었습니
다'⁵⁵⁾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선교사들은 그들의 집에다 객실을 마련하고 찾아
오는 자들을 맞이하여 전도하였다. 일종의 역심방 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 형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서의 심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⁵⁶⁾ 앞에 언급한 선교사도 뒤에 기록하기를
'전주로 이사하여 지금 서문안 여학교 집에서 살고 있는데 4삭 동안에 844명이나
심방 하러 온 자가 있었나이다'⁵⁷⁾라고 기록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찾아가서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찾아오게 해서 안방에서 만나는 것도 심방이라고 이해를 하였다
고 보아지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초기에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적 형
편에 따른 선택이었다.

또한 교인들을 찾아 순회 심방전도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순회 심
방전도에 한국인 조사(오늘날의 전도사와도 같음, 助事, helper)가 함께 동행을 하
였는데, 오늘의 김제동부교회인 선인동 교회의 초기 일화에도 보면 '테이트 선교사
가 조사 이자익을 데리고 선인동에 왔다' 라는 기록이 있다.⁵⁸⁾

이러한 조사들은 초기에는 선교사들의 어학선생으로 출발을 하였다. 그래서 선
교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설교를 맡기도 하고, 선교사의 위임을 받아 교회의 치리
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때로는 선교사나 조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그 교
회의 성도들 중에서 선출하던지, 선교사가 위임을 하여 영수(領袖, leader)를 세워
서 심방하며 돌보도록 하였다.⁵⁹⁾ 이러한 한국교회초기의 미조직교회의 두 직분은
뒷날 한국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통로이기도 했다.

초대 선교사들이 지방을 광범위하게 순회하면서 전도했다는 것은 이들의 활동의

55)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 전래』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8), 130.

56) 이영현,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0), 96.

57) 주명준, *op. cit.*, 130.

58)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전래』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8), 227.

59) 이만열, 『한국기독교수용사』 (서울: 두레시대, 1998), 336.

범위를 시사하는 말도 되고 또 이들의 교과서적 신앙형태가 부흥 적인 복음전도의 전략에 있었다는 말도 되겠지만 동시에 교인들을 찾아 신앙의 순도를 확인하고 지침해 주는 목회적인 관심의 의미도 있었다고 하는 중대한 말도 된다. 이것은 곧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가 적극적인 돌봄과 훈련에 있었다는 것에 비교하여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교회초기의 선교사들의 활동은 사랑방전도와 안방전도를 통하여 시작하여 순회전도나 노방전도로 발전하면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물론 전도에 치중한 정책으로 인하여 돌봄의 사역으로서의 심방에 대한 접근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돌봄으로서의 열정은 오늘날의 목회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열심이었다.

3) 한국목회자들의 심방

한국교회 초기의 목회자들은 심방을 아주 중요한 목회의 부분으로 인식을 하였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심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가르쳤고, 심지어 여성지도자들을 양육하는 학교에서도 시간을 배정하여 심방을 가르칠 정도였다.

정읍제일교회의 약사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1911, 정읍군 태인면 매계리교회와 북면 한교리교회와 입암면 천원교회를 설립한 최중진 목사의 열심 심방 전도하여 주신 결과로 한교교회와 천원교회의 협조를 얻어 황대일 씨 집앞에 예배당 초가 2칸을 건축한 후 교인은 증가되기 시작하였다⁶⁰⁾

최중진 목사라는 분이 와서 열심으로 심방하고 전도하여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초기의 목사는 전도와 심방에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27년 '기독신보'에 실린 서울중앙성결교회의 탐방기에는 이런 기사가 있다.

60) 주명준, *op. cit.*, 245.

다음으로 목사에게 교인 지도하는 방법을 물었다. 그는 웃음을 얼굴에 띄고 대답하기를 “나는 개인 심방을 힘쓰고 또 새 교인을 얻는 데는 사교로부터 교회로 들어 오게 합니다”한다.⁶¹⁾

1927년 당시에 서울중앙성결교회를 시무한 김창준목사의 인터뷰 기사였다. 이 내용을 통해 보아도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심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영환 목사⁶²⁾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한국초대교회사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심방이요, 셋째는 설교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심방은 한국초대교회사의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한국교회 초기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선교사들의 교육에서도 심방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초대교회사에 있어서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을 우리는 언급을 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성서학원을 세워서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하고자 힘썼는데 그 중에 경성성서학원같은 경우는 농촌사역, 가두전도, 실내전도, 전도책자배포, 심방 등과 같은 전도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가르쳤다고 전하고 있다.⁶³⁾

토마스 부인이 설명한 성서학원의 일과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⁶⁴⁾

우리의 성경교육은 철저하다. 2시 30분부터 5시까지 학생들은 각각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는 심방, 가두설교, 전도지 배포, 여성집회 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시내 복음 전도관에서 이루어지거나 한국인의 가정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61) “서울교회를 차져서 중앙교회,” 『기독신보』, 1927. 11. 23.

62) 예장(고신) 중경총회장, 서울강서교회 원로목사.

63) 박명수, 『초기한국성결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서회, 2001), 304.

64) Mrs. Thomas, “A Day in a Missionary Life” The Way of Holiness (February 1914). 4.(미간행 일기)

이러한 글들을 보아서도 한국초대교회의 신앙교육과 신학교육에 있어서도 심방에 대한 교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초기에는 구체적인 교육을 통하여서도 심방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고 전도와 더불어 목회사역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던 것이다.

평양신학교의 실천신학교수를 지냈던 곽안련⁶⁵⁾은 평양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그의 저서⁶⁶⁾에서 목회적 심방의 필요성에 대하여 6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다.

- (1) 교인들의 사정은 심방 함으로써 더 잘 알 수 있다.
- (2) 교우의 가족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나 고용인들에게 접촉할 기회를 얻게 되어 그들을 믿게 하는데 더 효과적인 권면을 할 수 있다.
- (3) 교우들의 경제, 지식, 사교의 형편을 알 수 있다.
- (4) 설교 자료를 수집한다. 심방을 잘하는 목사는 교인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가치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다.
- (5) 심방 함으로써 기도의 제목을 알 수 있다.

65) C. A. Clark 1878-1961. 미 북장로회 한국선교사, 신학자, 교육가. 한국명 곽안련. 미. 미네소타 출생. 1902년 북 장로회 해외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내한하였다. 승동 교회에서 20여 년간 시무하며 다방면에 걸쳐 선교활동을 펼쳤다. 특히 한국 전통적인 관습이던 계급관념과 남녀 차별의 부당함을 인식, 그 형평운동에 크게 공헌하였다. 1908년 평양장로회신학교 교수로 취임하였다. 그는 여기서 실천신학과 기독교 교육분야를 가르쳤다. 일제 말엽 6년 동안은 평양신학교의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신학지남>의 편집책임도 맡았으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행하기로 한 <표준성경주석>의 발행 책임자로 선임되었다.

1941년에는 세계평화 기도문사건에 연루되어 일제에 의해 수난을 당했고,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었다. 1925년 8월에 한국어로 출판된 목회학은 한국교회 목회의 뼈대를 세워주었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66) 「곽안련 박사」의 저서 『목회학』은 초판이 1925년 8월 30일로 나와 있는데, 해방이 후에 곽안련 박사 기념출판위원회에서 한국에서 보낸 박사의 생애를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한 것이다.

이 저서를 통하여 일제 때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신학공부를 시켰으며, 특별히 심방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6) 심방을 안 하면 불평이 많다. 심방을 부지런히 하는 목사에게는 비교적 불평이나 비난이 적다.⁶⁷⁾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평양신학교에서도 목회의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심방을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4) 심방대원과 모양

선교사들은 심방대원으로서 조사를 대동하고 다녔다. 궤안련은 1925년에 지은 그의 저서 목회학에서 만약에 젊은 여자가 있는 집을 심방 하고자 할 때에는 권사나 다른 연로한 부인을 대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⁶⁸⁾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도 심방대원으로서 권사나 부인들이 대동을 하였으며, 권찰과 조사나 장로들이 대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방 시에는 성경말씀과 기도가 행하여 졌었다. 궤안련은 그의 저서 목회학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심방 할 때마다 각 가정에서 번번이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심방 하는 가정의 여러 형편을 보아서 임시로 바꾸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가족이 여러 가지 일에 바쁘면 그 가족 중에서 좀 한가하거나 큰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만날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목사의 기도를 원하므로 잠깐이라도 가정기도를 인도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것도 성경 몇 절을 읽고 기도하면 된다.⁶⁹⁾

여기에서 궤안련은 기도는 꼭 빠짐없이 해야 하며, 거기에 성경을 읽고 찬송까지 부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67) 궤안련, 『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96), 91.

68) *Ibid.*, 72.

69) *Ibid.*, 94-95.

(1) 전도부인의 활용

한국교회는 남성들보다 여성 신도들이 많고, 또한 종교에 대한 의뢰심도 컸다. 그러나 내외 풍속이 엄격하던 시대에 여자를 찾아 교육하고 심방하고 구원시키는 일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래서 성결교회⁷⁰⁾를 중심으로 전도부인의 활동은 한국교회 초기 복음화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전도부인은 오늘날과 같은 제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전도를 목적으로 삼고 봉사를 부탁 받은 부인이었다. 주선에 교수의 장로교 여성사의 제 3장에 여전도사와 여선교사들이란 항목에서 “이 많은 부인이 성경책을 팔기도 하고, 선교사들을 도와 전도여행에 동행 할 수 있게 되었다”⁷¹⁾고 하였다.

장로교회의 경우도 벌써 1893년에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는 한국선교정책 10개 항목에 ‘부녀 전도의 노력’이라는 항목을 채택한 바가 있었다. 부인들 상대의 전도는 처음에는 선교사 부인이나 여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다가 1888년에는 ‘여자성경연구반’을 조직하여 ‘전도부인’ 양성에 힘쓰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장로교회가 1901년에 목사양성을 위한 신학교의 설립보다 훨씬 앞선 일이었다.⁷²⁾

감리교회에서도 여교역자 양성에 일찍부터 힘을 써 왔다. 1886년에 이화학당을, 1898년에 배화학당을 세워 여성교육을 실시하다가 교회 안에 수적으로 증가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사역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6년에 ‘보혜여자성경학원’이 원산에 세워지면서부터 여교역자를 양성하여 전국 교회에 배치하여 전도와

70) 성결교회는 독특하게 전도관을 중심으로한 선교였기에, 전도관마다 전도부인을 두고 전도에 열심을 다하였다. 그래서 박창식은 전도관과 전도부인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김천 복음전도관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인 전도부인은 허순성이었다. 1909년 5월에 송도 복음전도관의 강태은, 김두엽 전도사의 전도를 받고 최홍은 전도부인의 권유로 믿음의 동기생이요, 신앙의 동지인 이유겸부인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전도부인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참조: 박창석, 『경북기독교회사』 (서울: 코람데 출판사, 2001), 135.).

71) 주선에, 『장로교여성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1978), 54-57.

72) “전도부인 양성,” 『장로회 신학대학 70년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71), 28.

심방 등의 일을 맡아 하게 되었다.⁷³⁾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초기에는 여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교회부흥의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2) 권찰제도와 구역제도의 도입

한국교회에는 독특한 권찰제도와 구역제도가 있어왔다. 이 구역제도를 한 단계 높여서 전문성을 둔 것이 오늘날의 셀교회가 아닌가 한다. 이 구역제도와 권찰제를 돌아보고 섬기는 권찰제도가 한국에 언제부터 있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박안련의 목회학에서는 목사가 심방을 할 때에 권찰과 미리 약속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⁷⁴⁾ 박안련의 저서가 1925년에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는 교회에 구역과 권찰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① 구역제도

세계초대교회사에서도 보면 성령의 강림이후에 교인들의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관리가 어려워 결국 사도들은 7명의 집사들을 선임하여 그 일을 나누어 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구역제도를 두게 되었다. 그런데 이 구역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한국선교의 초기에는 구역제도 대신에 장로교회에서는 사경회(査經會)라고 하는 성경공부 모임이 있었고, 감리교회에서는 선교초기부터 속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다.⁷⁵⁾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마산문창교회같은 경우도 교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인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1916년 9월 11일에 3구역을 편성하여 장로 3인

73) 『감리교와 신학대학사』, “감신대 79주년 기념,”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1975), 134-136.

74) 박안련, *op. cit.*, 94.

75) 황성철, “전통적 구역제도의 기여와 한계,” 『목회와 신학』 통권 83호 (1996): 52.

을 통하여 구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⁷⁶⁾

특이한 것은 1915년 6월 28일 문창교회 당회가 권사 3인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유급권사로 세우고 있다.⁷⁷⁾ 이것은 교회와 당회가 심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교회의 심방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권사가 교구와 구역에 속하여 적극적으로 심방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권찰제도

권찰제도는 한국교회 초기부터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있었던 듯 하다. 문창교회의 경우에도 각 구역별로 2명씩의 권찰이 배정이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남자권찰도 배정이 되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남녀 권찰 2인씩이 배정되어졌다고 문창교회 100년사에는 기록이 되고 있다.⁷⁸⁾

(3) 장로의 심방

초대교회는 교회 수에 비하여 목회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때였다. 그 예로 1907년 9월 17일 평양 중앙교회에서 남·북장로교회와 캐나다 및 호주 장로교회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를 조직하였는데 그때의 구성원이 선교사 38인과 한인 장로 40인이었다.⁷⁹⁾ 거기에서 최초로 한국교회의 7명의 목사가 장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초기 한국교회의 심방은 선교사들의 사랑방선교를 겸한 심방이었고, 교회는 선교사들의 순회선교와 그 교회를 책임 맡은 영수와 조사와 장로들에 의한 심방으로 운영이 되어 졌던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돌보며 심방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각 예배당의 평신도인 본처 전도

76) 문창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문창교회 100년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92.

77) *Ibid.*

78) *Ibid.*

79) 광주서현교회 90년사 편찬위원회, 『서현 90년사』 (광주: 삼일인쇄사, 1998), 70.

사(Local Preacher)나 장로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었다.⁸⁰⁾

고 전호영목사의 목회수기 중에서도 보면 1937년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전도사와
과 장로와 교우들이 심방을 왔다고 전하고 있다.⁸¹⁾ 아마 전 목사의 어린 시절 다
년 교회에는 전도사가 담임교역자로 있었던 듯 하다. 이렇듯 초대교회에는 장로가
단독으로 심방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목사나 전도사의 심방에도 장로는 늘 함께
대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본래 개혁교회에서는 가정심방을 장로의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
장로의 가정 심방은 개혁주의 교회생활의 전통이었다.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 장로
직분을 도입하면서 장로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가정 심방을 통한 교회의 영적 관
리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장로들은 자기 교구에 속한 가정들을 필요
에 따라 심방 하여 돌보되, 매년 한번씩은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로들은 일반적인 교회의 직분적 봉사 외에
적어도 주중에 하룻밤은 이 공식적인 심방을 위해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⁸²⁾

이 좋은 전통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심어졌는데,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있어서 심방은 목사나 부교역자들의 몫이 되어 버리고, 당회원인 장로
는 심방을 감독하는 자리에 서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4) 심방 받는 가정의 준비

심방 받는 가정은 남을 대접하기 좋아하는 한국의 풍습을 따라서 음식을 준비하
여 심방 자들을 대접을 하였다. 그래서 광안련은 “믿는 가정의 부인들이 목사가 오

80) 기독교대한 감리회 중앙교회 기획위원회, 『중앙교회 107년사』 (서울: 1998), 23.

- 당시 교회는 개체교회 중심이 아니라 공동목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선교사
들은 순회구역(circuit)안에 있는 교회들을 돌며 모든 교회를 돌아 보았고, 선교사들
은 지도적 위치에 있었고, 실제적인 교회의 돌봄은 본처 전도사(Local Preacher)의
몫이었던 것이다.

81) 인터넷검색 (주소: <http://sombul.duri.net/hoyoung2.html>), 『고 전호영목사의 목회
수기』 중에서

82) 허순길,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 (서울: 총회출판국, 1994), 85-86.

는 날을 알기 원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통례인데 목회적 심방 때에는 미리 광고하여 시간관계로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야 한다. 식사에 시간을 다 들이면 방문을 하지 못하고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한다.”⁸³⁾라고 말을 하고 있다.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비롯한 심방자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여 정성껏 대접을 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좋지 못한 관습도 생기게 되었다. 감사헌금이 그것이다. 감사헌금은 명목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에 드러지지 않고 목회자 개인에게 들어갈 때에 폐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하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도시에서는 심방 때에 감사헌금은 드리고, 대접은 간단한 음료나 다과로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회 10개 처에 목사 한사람 정도이었던, 목사가 귀한 시대였기에 목사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필자가 속한 교단⁸⁴⁾만 해도 1500개 교회에 목사의 수가 2000명이 넘기에 목회자가 귀하지 않아서인지 그렇게 과거와 같이 사모하며 기다리지도 않을뿐 더러 바쁠 때나, 연락이 없이 오면 자칫 홀대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5) 대심방

(1) 대심방의 흔적들

해방이전에 대한 대심방의 기록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생존하였던 목회자들도 별로 기억하고 있지 않다. 아마 그 이유는 교회의 수에 비하여 목회자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통합측 서울노회의 역사에서 보면, 1910년도의 한국장로교회는 예배처소가 1,632개였고, 예배당이 1,448개였다. 그리고 목사의 수는 75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때는 목사 한 명이 20개 교회를 넘게 관할해야 한다는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

83) 광안련, 『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초판 1925년, 개정 7판 1996년), 94.

84)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리고 장로의 숫자도 133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 목사나 장로가 시무 하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10분의 일도 되지 않은 것이다.⁸⁵⁾ 이런 상황에서 체계적인 심방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선교사인 곽안련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장로교회의 경우에 1920년에 전체 교회는 1921개 처였고, 목사 수는 180명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세례교인이 69,025명, 학습교인이 20,083명이었고, 평균 회집 인원이 122,156명이었고 주일학교 학생수가 136,176명이었다고 한다.⁸⁶⁾ 그러니 1920년대 들어와서 교회의 형편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목사 한 사람이 10개 교회 이상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성도수로 하자면 목사 한 사람이 주일학교 학생까지 하면 1,400명 이상을 돌아보아야 하니 제대로 심방이 될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1940년대에 들어서서는 사정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전체 교회 3,236개 교회 중에서 목사가 시무 하는 교회는 아직 541개 밖에 되지 않았다.⁸⁷⁾ 이것은 목사 한 사람이 6곳 이상씩을 책임질 수도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목사가 없는 교회는 유고심방 같은 경우에 조사나 영수나 장로가 할 수는 있었어도, 목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 없는 교회를 방문하여 당회를 열게 되었을 때에 그 당회에서 의논되어 지는 것은 당연히 심방에 관한 것보다는 성례와 치리가 주를 이루었던 것을 본 필자는 당회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⁸⁸⁾ 이렇듯 해방이전에는 대심

85) 서울노회사편찬위원회, 『서울노회의 역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114.

86) 채기은, 『한국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89.

87)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282.

88) 노량진교회 90년사 편찬위원회, 『노량진교회 90년사』 (서울: 동위원회, 1996), 468-469.

- 서울 소재 노량진 교회의 당회록 활요중의 한 부분이다.

제 4회 : 1924. 3. 6. 하오 7시 - 입교인과 학습인에게 문답키로....

제 5회 : 1924. 4. 20. 하오 8시 - 5월 첫주일에 세례와 성찬례를 거행하기로....

제 6회 : 1924. 10. 10. 상오 9시 - 교인 이병일씨가 7계를 범함으로 출교키로....

.....

제 14회 : 1925. 4. 12. 상오 9시 - 19일에 성찬례하기로 하고 22일부터 1주간 새벽 기도하기로....

방이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대심방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평양 장대현 교회의 안봉주 목사⁸⁹⁾의 일화 중에서 대심방에 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⁹⁰⁾

평양 장대현 교회의 안봉주 목사가 장로시절 심방대를 인솔하고 심방 하던 중에 샷전골에 들어서서 한 불신자 가정을 방문했다. 여자교인이 먼저 들어가고 안 장로는 그 집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욕설이 쏟아져 나오더니 난데없이 담 너머로 뜨물이 날아와 안 장로에게 쏟아졌다. 안 장로는 말없이 웃으면서, 그 집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빌며 대원들과 함께 그 집을 떠났다.

다음해 봄이 되어 대심방이 시작되었다. 안 장로는 대원을 데리고 샷전골로 들어서서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던 중 한 여자 대원이 지난해에 욕을 당한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때 안 장로는 대원들에게 자신이 지난해에 당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여자 대원이 뒤돌아서 뜨물을 쏟아 부은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고 고백하자 모두가 다 크게 웃고,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음식을 나눴다. 그가 바로 이득반 권찰이었다⁹¹⁾

평양 장대현 교회는 길선주 목사가 시무 하던 평양에서 중심적인 교회였다. 작은 교회에서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대심방이 행하여졌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신 증경 총회장을 지낸 민영환 목사는 일제시대에는 대심방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민목사는 해방전인 1943년부터 목회를 시작하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변에서도 대심방 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대심방이 오늘날과 같이 보편적

89) 안봉주목사, 1870-1938, 장로교 목사, 평남안주 출생,

- 길선주 목사의 전도로 교인이 되었다. 갑산, 곡산, 평양, 안주에서 목회.

90) 길진경이 지은 “영계 길선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인터넷검색, (주소: http://www.sermon66.com/news_view.html?s=index)

* 길진경, 『靈溪 吉善宙』 (서울: 종로서적, 1980).

91) 『예화대백과 사전』, 제5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2), 484.

으로 행해진 교회의 행정적 관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⁹²⁾ 그리고 고신 중경 총회장을 지낸 이금도 목사의 증언에 의해서도 보면 본인은 1949년부터 목회를 시작하였지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의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대심방 이라고 교회에서 다닌 것은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대심방 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심방을 한 것은 6.25이후에 5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대심방 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하며, 그 전에는 온 교인들 가정을 일년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돌아보는 심방을 일제심방이라고 불렀다고 전하고 있다.⁹³⁾ 또한 해방전후에는 교회숫자에 비하여 목회자의 숫자가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목사가 정기적으로 심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금도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유고심방이나 특별심방을 소심방 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에, 일제심방은 큰 심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심방 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며, 자신이 신학공부를 할 때에는 대심방 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르치지 않았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대부분 대심방 이라고 칭하게 되면서부터 일제심방을 하던 것이 자연스럽게 대심방의 정착으로 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⁹⁴⁾

아마 장대현 교회의 일화도 후에 기록하는 사람이 대심방 이라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일제히 돌아보는 대심방은 일제때에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고, 큰 교회에서 행해진 것이었으며, 대심방 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였는지도 확실하지는 않다.

92) 「민영환 목사의 녹취록」 에서

* 민영환목사 - 예장고신 총회장 역임, 서울강서교회 원로목사

93) 「이금도목사」 의 녹취록에서

* 이금도 목사 - 예장고신 총회장, 마산제일문창교회 원로목사

94) *Ibid.*

(2) 평양신학교에서의 대심방에 대한 가르침

평양신학교에서도 대심방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때 평양신학교의 교장으로도 봉직하였던 콕안련(C. A. Clark)은 평양신학교 때 가르친 그의 저술에서 심방을 목회적 심방과 사교적 심방으로 나누고 있다.

콕안련은 사교적 심방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면서도 목회적 심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목회적 심방을 이렇게 말을 한다. “목회적 심방이란 목회의 직무상 심방이다. 책임을 맡은 구역 안의 믿는 가정과 불신자의 가정을 모두 심방 하여 그 신앙 및 가정의 형편을 알아보고 그들의 좋은 활동과 사업에 찬성하고 도와주어야 한다.”⁹⁵⁾

여기서 우리는 모두라고 하는 단어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콕안련은 대심방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목사가 모든 성도들을 빠짐없이 심방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일년에 몇 차례의 심방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

“목사마다 자기가 맡은 지방의 사정을 참작하여 할 것이요, 일률적으로 규칙을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교적 심방 외에 일반적으로 일년에 세 번 이상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이다. 1년 365일 중 52주일과 월요일 50일과 기타 공무에 60일 모두 160일을 제하면 200일이 남는다. 그러므로 매일 세 가정씩 방문하여 200가정이 있는 교회는 일년에 세 번씩 심방 할 수 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충실히 심방 하면 매일 세 가정 이상을 찾아볼 수 있다.”⁹⁶⁾

여기에서 콕안련은 계획적으로 교인들의 모든 가정들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초대교회의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에게 심방을 이렇게 가르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신학생들이 목회일선에 가서 심방을 할 때에 일년 내내

95) 콕안련, *op. cit.*, 91.

96) *Ibid.*, 93.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워 심방을 하기보다는 단기간에 한꺼번에 온 교인들의 가정을 한가정도 빠짐없이 다 살피기 위해 심방을 하고자 한 것이 대심방의 효시가 아닌가 한다.

이렇게 대심방은 온 교우들을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한꺼번에 돌아보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며, 훈련하기 위하여 세워진 한국교회만의 좋은 전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만큼 한 가정 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돌봄의 사역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했던 한국 목회자들의 열심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좋은 열심의 모습이 근래에 와서는 그 본질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또한 대심방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2. 해방이후로부터 80년대 이전의 심방

1) 해방이후의 대심방

해방이후에는 앞에서 밝힌 대로 교회들마다 대심방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교회의 숫자에 비하여 목사의 숫자가 그 만큼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구 경산지방에 있는 사월교회의 100년사에서조차 대심방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1947년에 연말 대심방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⁹⁷⁾ 그 당시에 분명히 대심방 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교회는 대심방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용산구에 속한 청암교회의 연혁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UN군의 수도 탈환으로 다시 서울로 귀환하여 허물어진 교회를 복구했다. 각 처에서 모여든 성도들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해 제주피난민 교회는 청암교회로 완전히 복구되었다. 목회사역은 새롭게 시작되었고 불철주야 교인들을 심방하여 서울 수복 직후 교인 수는 400명으로 급증하였다.”

97) 박경환, 『사월교회 100년사』 (대구: 동아문화사, 1999), 263.

청암교회의 목회자는 6.25사변이 지난 뒤에 흩어진 교인들을 심방으로 돌아보았다고 전하고 있다. 6.25사변은 한때 부산과 경남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공산군의 손에 들어갔던 전쟁이었다. 그래서 서울에 속한 청암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피난길에 올랐을 것이고, 또한 남은 성도들도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사변이 끝난 뒤에 성도들의 가정 가정을 돌아보면서 안부를 묻고 위로로 하고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비단 청암교회 뿐만이 아니라 사변을 겪은 한반도 전체의 교회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그래서 대심방은 6.25사변 뒤의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는 위로심방으로 이어져서 전 교인들의 가정을 일년에 한, 두 차례 돌아보는 관행적인 심방으로 굳어져 갔던 것이다⁹⁸⁾

2) 전화심방의 등장

한국에 전화가 도입된 시기는 구한말이다. 1898년에 덕수궁에 가설된 것이 시초였다. 그리고 세월을 거치는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1943년에 66,510대가 61년에는 107,961대로 발전이 되었고, 83년에는 464,408대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76년이 지나서야 전자교환방식의 교환기 채택이 이루어졌고, 시외전화의 자동화도 80년대 들어서야 가능하였다.⁹⁹⁾ 그래서 전화가 모든 사무실에 보편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그리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의 사무실에 전화를 두어서 교회의 업무를 보게 한 것은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별로 오래 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양림교회의 당회록¹⁰⁰⁾에도 보면 당회에서 교회 전화를 가설하기로 가결하고 있다.¹⁰¹⁾ 이것은 60년대에서 70년대로 들어오면서 각 교회들이 교회전화를 가설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나마 작은 교회에서는 아직도

98) 인터넷검색,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 소재한 「청암교회의 연혁」 중에서

(주소: http://www.cheongam.org/intro/history_01_C.htm)

99)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4), 508-509.

100) 차종순, 「양림교회 90년사」 (광주: 양림교회 90년사 편찬위원회, 1994)

- “양림교회 당회록,” 1971년 10월 31일자.

101) *Ibid.*, 294.

전화를 가설하지 못한 교회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심방은 6, 7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는 심방에서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간편한 심방으로 심방의 패러다임이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교인들의 사정을 직접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와도 상반되는 것이며, 한국교회의 심방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 계기도 되었던 것이다.

3) 유고심방에서 상담심방으로의 전환

6-70년대의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게 되었고, 교회가 이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기 시작하였다.¹⁰²⁾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상담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공부하기 위하여 세미나와 학교로 몰리는 형편이다.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심방에 대하여 가르치는 세미나는 전무하다. 하지만 상담에 대하여 가르치는 세미나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상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1951년 7월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클레이먼트 신학교에서 목회상담학을 공부한 이환신 목사가 귀국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이환신 목사는 연희대학교 신학부에서 '목회문의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회상담학 강의였다.¹⁰³⁾ 그리고 임상교육의 시작은 1974년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반피득 교수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현장으로 하여 한국최초로 임상목회교육을 실시하였다.¹⁰⁴⁾

성경적 상담이론이 들어온 것은 70년대 후반이었다. 칼 로저스 학파의 이론이 한국 상담계의 주축을 이룰 때에 성경적 상담이론이 소개되어 상담학에 대한 성경적

102) 공종은, "난 '상담하는 목회자'인가," 『기독교연합신문』, 2002. 5. 19. : 5.

103) 정정숙, "한국신학대학원의 상담교육 연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이근삼 박사 사역 50주년 기념논집-』 (서울: 총회출판국, 2002), 607-609.

104) 김기복, 『임상목회교육』 (서울: 전망사, 1993), 7.

조명이 시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정숙이 미국의 제이 E. 아담스 (Jay E. Adams) 의 '권면적 상담이론'과 로저스 크랩 (Lowrence J. Crabb) 의 '성경적 상담이론'을 소개함으로써 기독교 상담에 대한 성경 신학적 접근을 하게 되었다.¹⁰⁵⁾ 그래서 사실상 목회상담의 분야가 보편화 된 것은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회상담의 보편화는 심방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목회상담의 잘못이 아니라 목회상담과 심방을 혼동하고 잘못 이해한 일선 목회자들의 잘못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80년대 이후의 심방

1) 대심방의 쇠퇴

본인이 섬기는 가선교회¹⁰⁶⁾ 같은 경우는 일년에 두 번 하는 심방을 한번으로 줄었다. 그 이유는 봄, 가을로 하게 되면 생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심방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보통 심방대원으로 시무장로와 권사와 구역 권찰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심방을 하는 날은 하루 종일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구역 권찰 같은 경우는 그 구역에 심방이 있는 날에 하루를 동행하면 되지만, 시무장로와 권사의 경우에 작은 교회는 몇 주간, 큰 교회는 한달 이상을 동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생업을 가진 성도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부득이하게 심방을 년 1회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년 1회로 축소하는 대신에 구역예배를 담임목사가 한 주에 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인도함으로 가정을 돌아보고자 힘쓰고 있다. 그렇게 하면 한 주간엔 한 구역과 한 가정 정도는 돌아보게 되며

105) Jay. E. Adams, 『목회상담학』, 정정숙 역 (서울: 총신대출판부, 1981).

Loarenc. J. Crabb, 『성경적 상담학』, 정정숙 역 (서울: 총신대 출판부, 1982).

106)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영남노회 서부시찰 소속.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45번지.

일년에 52가정을 돌아보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필자가 적을 둔 노회의 교회 중에서 90%이상이 대심방을 일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다.¹⁰⁷⁾ 매년 일년에 두 번 실시되던 대심방이 일년에 한번으로 축소가 된 것이다. 그리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점차적으로 대심방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기원은 교인들이 대심방을 기피하는 이유를 농촌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쁜 일손 때문에 농한기인 겨울 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을 대심방으로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 교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타 훈련 프로그램을 가질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도시교회 같은 경우에는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 담임목사가 일년에 한두 차례 대심방을 한다면 다른 일손은 거의 손도 못 댈 것이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현대의 도시 교인들은 주부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부업을 가지고 있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핵가족화로 집을 거의 비우게 될 일이 많은데 별 문제도 없이 꼭 심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많은 도시교회들이 목회심방이라 하여 한 주에 하루, 이틀씩 고정적으로 심방 하여 연례적 대심방을 보다 효과 있게 운영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⁰⁸⁾ 이것은 평양신학교에서 파안련이 가르친 심방학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대심방이 축소 운영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심방이 필요한 이유도 있다. 한제호는 3가지로 예를 드는데, 첫째로 대심방은 때로는 목회자와 교우들의 유일한 상면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인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인들의 얼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다. 전에 시무 하던 교회가 교인수가 4천명 이상이 되었었는데, 담임목사의 심방은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나다가 만나도 담임목사가 교인들을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심방은 교인들을 잠시

107)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영남노회.

108) 한기원, “현대도시교인들은 왜 심방을 기피하고 있는가,” 『월간목회』 통권 35호 (1979. 7): 20.

나마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교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데 없어서는 안될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가정만을 돌아보며,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므로 가르치는 것은 열 번의 설교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세번째는 구역관리자들(구역장, 권찰)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성경이나 교리, 신도로서의 예절, 대인 관계와 같은 것 등, 대심방 기간에 목회자와 동행하므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제호는 대심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¹⁰⁹⁾ 이 내용은 이미 70년대 후반에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그 시대에 이미 대심방에 대하여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제호의 말처럼 오늘날의 대심방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상에 좋은 장점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겠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방법상의 융통성도 살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대심방의 정신과 좋은 장점만은 살려서 한국 교회에 바람직한 심방의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좋은 전통으로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2) 방문심방의 위기

필자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심방을 하는 중에 피심방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쫓겨난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연락을 하지 않고 찾아왔다고 하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이미 한국교회는 전화나 서신을 통하여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가는 심방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마다 일층 현관 앞에 전면 유리도어가 설치되어 비밀번호를 알던지,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호수를 눌러서 그 호수의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 허락되지 않으면 일층 현관에도 들어서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필

109) 한제호, "이상적인 심방대원 편성," 『월간목회』 통권 35호 (1979. 7): 25-26.

자가 목회 한 적이 있는 일산 신도시라든지, 그 외의 신도시들에서는 방문전도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는 시대가 되었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자 하는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방문심방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3) 상담목회와 상담실의 운영

최근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상담'을 실시하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목회자들은 일방적인 메시지의 선포보다는 실질적인 멘투멘식의 상담의 중요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적극적으로 상담목회를 실시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더불어 상담실을 운영하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남서울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은누리교회, 지구촌교회 등이 있다.¹¹⁰⁾

그 중에 한 교회를 예를 들면, 지구촌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 봉사자들이 요일을 정해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로 부부, 자녀, 내면문제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상담 봉사자들은 상담과정을 이수한 성도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문과정에 성도들을 보내어 그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학교'와 '가정사역 프로그램' 등이 있다. 상담학교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과정이 실시되며 초, 중, 고급과정 등 3개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기독교 연합신문의 공중은 기자는 2002년 5월 19일자 기독교연합신문에서 기고하기를 가급적이면 여성인력을 발굴해 상담실 운영에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적고 있다. 그 이유는 교회의 70%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인력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 좋은데, 실제적으로도 교회에서 상담을 실시하거나 상담실을 운영중인 교회의 대부분은 목회자 사모들이 상담 실무를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모들

110) "지구촌 교회 '상담 봉사자'로 상담실 운영," 『기독교연합신문』 *loc. cit.*

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¹¹¹⁾

4) 인터넷의 보급과 사이버심방의 등장

한국은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미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웬만한 가정은 인터넷을 설치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 메일을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있다. 필자의 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회에도 인터넷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별히 현재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목회와 사이버심방을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교인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교회의 홍삼열 목사는 전자우편으로 매주 교인들에게 교인광고와 함께 생일축하, 그리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학생들이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설교를 올리기도 한다.¹¹²⁾

본인의 교회에서도 홈페이지를 두고 게시판이나 목사와의 대화방을 두어서 상담을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새벽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새벽예배 설교원고를 올리고 있고, 매일 매일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 가는 형편이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쉽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사이버심방의 매력인 것 같다.

인터넷방송 C3TV가 현재 방송사에서 운영중인 '목회정보 2000'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로는 인터넷상에서 교인들을 관리하고 심방 하는 것에 대해 목회자 대부분은 긍정적이며, 시대적 필요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목회자들의 활동영역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¹¹³⁾

111) 공중은, *loc. cit.*

112) "목회도 인터넷시대," 『디지털 성결신문』 288호, 2000. 7. 15.

113) "인터넷 심방. 교인관리 시대적필요," 『기독교연합신문』 2002. 4. 21.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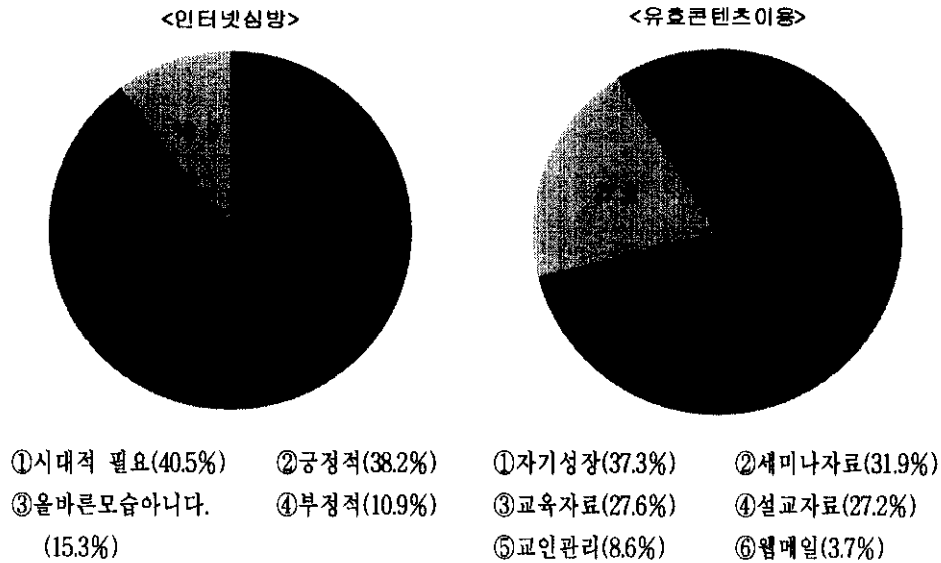
앞선 C3TV에서 '인터넷상에서 교인들을 심방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은 결과 40.5%가 '시대적 필요', 38.2%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해 목회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목회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이었으며,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15.3%), '부정적이다'라고 대답한 부류도 2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에 답한 목회자들 가운데 인터넷 전용선을 사용하는 목회자가 84.3%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설문내용에서 목회자들은 이미 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또한 목회의 각 분야에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 졌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심방을 하는 문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를 목회에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도시교회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타인의 간섭을 부담스러워 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심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양해와 시간을 약속해서 가는 형편이고, 그것도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맞벌이로 인하여 부담스러워 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사이버 심방은 계속적으로 목회자들의 관심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표 1> 인터넷상에서 교인을 심방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4. 21세기의 심방에 대한 전망과 평가

1)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심방의 보편화

현재 우리 나라는 I.M.T.2000이라고 하는 통신서비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고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통신 체계는 육상, 및 위성 환경에서 음성, 고속 데이터, 영상들의 멀티 미디어 서비스 및 글로벌 로밍을 제공하는 유무선 통합 차세대 통신서비스를 말한다.¹¹⁴⁾ 다시 말해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화상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미 휴대폰을 이용한 화상전화는 광고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컴퓨터로 하는 화상전화 시스템은 미약하지만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전자메일(컴퓨터 통신망의 편지 쓰기 기

114) 인터넷 검색, "What's IMT-2000? (IMT-2000이란 무엇인가?)."

<http://mobile.daesangit.com/mobile/lecture/imt2000/imt.jsp>

능)을 통한 서신교환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형편이고,¹¹⁵⁾ 과거와 같이 편지지를 주고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다. 현재 학생들 중에서 이 메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함께 어울릴 수도 없고, 편지지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전화나 서신으로 시간을 정하여 서로 가정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심방을 나누며 상담을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이버 상에 이미 사이버 교회가 등장하였다. 사이버 교회는 사이버 상에서 설교를 듣고, 헌금도 온라인이나 사이버 머니로 결재를 한다. 숭실대 김영한 교수는 '목회와 신학 98년 2월호'에서 사이버교회를 평가하면서 사이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단정 짓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¹¹⁶⁾ 여하튼 정보화 시대는 목회의 형태를 바꾸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번 이상씩 컴퓨터 앞에 앉게 된다면 결국 컴퓨터가 목회의 주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교회는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목회의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신학적인 접근과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사이버 심방도 직접 살피고 지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는 사이버 심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살피고, 돌아보며, 지도할 수 있는 기존의 목회심방에도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다.

2) 찾아가는 심방에서 찾아오는 심방으로의 전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상담실이 상설화 될 것이다.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목사가 등장할 것이다. LA동양선교교회의 박광철 목사는 기고에서 이제 교회는 심방을 통하여 교인을 붙잡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이제는 일정한 구역별로

115) 박병호, "멀티미디어의 실제," 『목회와 신학』 통권 79호 (1996. 1), 92.

116) 김영한, "가상공간에 대한 신학적 진단," 『목회와 신학』 통권 104호 (1998. 2), 44-45.

모여서 교역자를 만나는 것이 효과적인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¹¹⁷⁾ 하지만 이 또한 목회자가 심방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에 하는 말이다.

목회자가 심방을 하는 목적은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함이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지 않고서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며,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로 세워 나가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심방의 바른 목적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지 않고 있는 한, 박 목사의 말과 같이 심방의 시대는 끝이 나고 말 것이다.

3) 심방목회에서 교육목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한국교회는 심방을 통한 위로의 사역이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인식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위기에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자생력을 길러 주는 목회로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의존하는 신앙인의 양성에서 자생하는 신앙인의 양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희 박사는 그의 저서 '미래 목회 대예언'에서 심방목회에서 교육목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교육목회가 심방목회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교육목회를 통하여 비로소 구비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양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목회는 가장 힘든 목회 스타일이지만, 목회자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목회이다. 교육목회는 교인 양육의 결과보다 과정에 관심을 두는 목회이므로 가장 진솔한 목회이며, 유동적인 미래를 교인들에게 교인의 정

117) 박광철, "효과적인 구역운영을 위한 심방제도 개선," 『목회와 신학』 통권 88호 (1996. 10), 65.

체성을 가지게 하는 목회이다. 그리고 교육목회는 미래 사회의 변동과 목회자의 목회관을 가장 쉽게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¹¹⁸⁾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심방 중심의 목회는 교육 중심의 목회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목회자 자신이 교인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의지가 필요하다.

이성희 박사는 심방 목회야말로 한계에 도달하였고, 이제는 교육목회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각종 제자훈련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앞서가지 못하는 교회,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교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교육목회와 심방목회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모두 공존해야 하는 것이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요, 교인을 세워 가는 좋은 훈련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미래를 대비하면서 심방목회와 교육목회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고, 심방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5. 요약

한국교회사의 심방의 흐름은 불과 100여년의 역사 속에 대단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전도로서의 심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성도들을 돌아보고 훈련하는 일제심방의 보편화와 그것이 대심방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심방을 중요한 목회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해방이후부터는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서 심방의 패러다임도 변하기 시작을 하였다. 심방이 성도들을 돌아보며, 교육하고, 훈련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위로해 주는 위로심방으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이 가기 시작하는 것

118) 이성희, 『미래목회대예언』 (서울: 규장출판사, 1998), 109.

이다. 그래서 전화심방이 등장을 하고, 상담심방이 등장을 하였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오면서는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제는 사이버심방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화상전화 시스템을 통하여 목회자는 서재에서, 성도는 가정에서 컴퓨터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심방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결국 이것은 심방의 위기를 초래하고,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보는 것이다. 권면만 있고 지도와 훈련과 권징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신앙생활은 결국 이중적인 면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칼빈의 심방과 비교하여 한국교회는 올바른 심방의 패러다임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감히 단언하는 것이다.

V. 바람직한 심방의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제언

앞서도 언급했듯이 칼빈의 심방은 지도와 감독과 훈련에 대한 수단이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혹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강력하게 권징도 행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심방은 감독과 훈련의 개념보다는 위로와 교인을 놓치지 않기 위한 수단에 머무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는 결국 심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전하기만 하고 돌아보지는 않는 일방적인 대화(One-way communication)의 사역에만 그칠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아예 찾아가지 않고 교회에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므로 종래의 심방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심방의 위기가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잘못된 성장의 위기를 초래하여, 교회는 많고 신자는 많으나 사회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제는 교회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까지 이어져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필자는 한국교회가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여, 한국교회의 새로운 심방의 패러다임을 정착하므로써,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람직한 심방의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몇 가지의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바이다.

1. 노회의 개체교회에 대한 감독권의 강화

칼빈은 지역교회의 목사들이 성도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하여 심방단을 조직하여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살폈던 적이 있었다. 결국 개체교회의 성도들의 양육과 심방은 그 교회의 담임목사의 몫이라고 할 때에 노회의 개체교회에 대한 감독권이

강화되어서 책임을 묻고, 올바른 양육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의 노회는 사실상 개체교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는 분위기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회 안에 개체교회의 양육을 돌아볼 수 있는 심방단을 특별부로 만들어서 일년에 한, 두차례 돌아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회 아래에 시찰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일을 노회가 주관하여 칼빈과 같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심방단이 일년에 한, 두 차례 개체교회를 탐방하며, 말씀사역과 양육사역, 심방사역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개 교회 교인들의 특성에 대한 정보와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논지는 개 교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좋은 연구들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주일설교의 성경공부교재로의 활용.

칼빈의 심방은 결국 목사의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과 그 결과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목사들을 돌아보면서 책임 있는 설교자로서의 자격을 묻기도 하였고, 장로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설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가지 방법으로서 설교를 성경공부 교재로 만들어서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다. 일종의 피드백효과를 만드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키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이끌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설교를 듣는 청중이 설교시간을 통하여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다음날 설교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허다하

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를 다시 한번 성경공부 교재로 편집을 해서 구역 성경 공부교재로도 활용하고, 심방 시에도 다시 한번 적용을 하므로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면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성도들의 삶의 지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장로의 돌봄의 사역의 확장

헌법¹¹⁹⁾에 보면 장로의 직무를 ①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②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③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④교인을 권면하는 일 ⑤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⑥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⑦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⑧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내용만 보아서도 장로는 심방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장로의 심방을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 대심방 때에도 자기 교구가 아니면 함께 동행하지를 앓고, 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교회의 장로제도는 관리와 양육의 개념보다는 감독자의 개념이 더 많은 것이다.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때에, 가장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때에 한국교회는 장로라는 틀 속에 헌신자를 가두어 헌신을 하지 못하고 감독자의 위치에만 남아있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장로선출에 대한 제도도 이러한 오류를 가능케 하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장로의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한다면 장로의 종신제는 너무도 큰 희생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정과 직장을 동시에 돌아보아야 하는 형편에서 종신제는 결국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명예직으로 전락하기가 쉬워지는 것이다.¹²⁰⁾ 그래서 사실상

119) 「헌법」, *loc. cit.*

돌봄의 사역으로 장로의 직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장로의 종신제에 대한 검토도 일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여하튼 한국교회의 심방의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로의 돌봄의 사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칼빈시대에 제네바 시에서의 장로의 돌봄과 같이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형편을 살펴 당회에 보고하고, 교회가 지도하게 하는 돌봄의 사역이 확장되어져 가야 할 것이다.

4. 정기적인 심방계획의 수립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너무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매일 매일 계속되는 심방과 시찰회, 노회, 총회의 일들과 지역 교회연합회의 일들, 그리고 과외로 말는 설교사역과 봉사사역,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한 학문탐구와 연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심방에 대하여 소홀해 지기가 쉬운 것이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지도하는 일이 설교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간 정기 심방을 제안한다.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어서는 주일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 문제가 있는 성도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주중 하루를 선택하여 주간 정기 심방을 하는 것이다. 시대적 요구와 목회자의 필요에 따라서 아쉽게도 대심방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에, 매주 정기적인 심방계획을 세움으로서 대심방을 대신할 수도 있고, 성도들의 삶을 놓치지 않고 돌아보며, 지도할 수 있다고 본다.

5. 권사와 권찰의 심방강화

한국교회는 권사와 권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한국교회의 초기에도 권찰제도

120) 허순길, “한국교회 장로직제, 왜 문제가 되는가,” 『목회와 신학』 통권 65호 (1994. 11), 59.

를 잘 활용하여 구역을 심방하고 돌아보며 당회에 보고하게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역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권찰이 존재하는 것 정도로만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심방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권사들을 통하여 권찰을 지도, 감독하게 하며, 권찰들은 권사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유고심방, 환자 심방, 새신자 심방, 전도심방 등을 통하여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고 목사나 장로의 심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6. 구역예배를 통한 심방목회

필자의 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일주일에 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구역예배를 인도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성도들을 더 만나고, 가까이 대하고, 그들의 가정을 살피고자 함이다. 왜냐하면 봄에 정기 대심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심방이 마치고 나면 이후에는 각 가정들을 빠짐없이 돌아보기가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주에 한 구역씩 돌아가며 구역예배를 인도함으로써, 그 구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며 지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역예배를 통하여 그 구역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그 구역에 속한 가정들의 소식을 묻고 상담과 지도와 기도를 병행하면, 혹이나 심방에서 소외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역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되고, 적절하게 지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주일 설교를 구역성경공부 교재로 활용하면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게 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VI. 결 론

1. 내용요약

제 1 장 서론에서는 오늘의 시대를 심방의 위기라고 진단을 하였다. 심방의 본질이 훼손되고, 심지어 각종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 목회심방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대에 편승한 심방의 내용과 형식의 변화가 과연 올바른 변화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방의 올바른 패러다임의 조성을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심방의 어원과 정의와 목적을 다루면서 심방의 본질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본질을 무시한 변화는 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봄의 사역으로서, 그리고 목자의 사역으로서의 심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다. 칼빈은 심방을 통하여 교인들을 지도하고 훈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 못지 않게 심방을 통하여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와 장로들에게 정기적인 심방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심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교회 초기의 심방은 한국교회에 선교의 뿌리를 내린 선교사들이 주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 선교사들이다 보니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를 대부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이 되고 난 뒤부터 전화의 보급과 목회상담의 등장,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본질을 떠난 심방이 행해지게 되었고, 일선에 있는 목회자들도 기존의 목회심방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으며,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그 전해진 말씀에 대하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까지의 책임은 회피하는 목회전반의 위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을 하였다. 그래서 결국 심방의 위기가 목회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로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심방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바람직한 심방의 패러다임을 조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이런 제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있을 때 한국교회는 심방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아가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 되어지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 제언

심방의 위기는 심방의 이해에 대한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심방은 돌아보고 지도하며, 나아가 훈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방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는 교회나 목회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교인들의 교회와 세상에서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야기하게 되었고, 나아가 한국전체 사회에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화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였고, 교회는 오늘날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권징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 이 또한 심방의 위기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권징과 감독이 없는 목회는 결국 나약한 성도들을 양산하여, 전투적인 교회와 성도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래서 좋은 시설과 여건 속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심방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결국 칼빈과 같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때로는 관리하고 감독하며, 지도할 수 있는 심방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초대교회사에 선교사들이 마을 마을 걸어서 교회와 교인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함께 성경공부하며, 기도하여 주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이 메일로

접근하기 보다, 앉아서 상담만 받기 보다, 나가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도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키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와도 같다고 하였다.¹²¹⁾ 어머니가 자녀들을 기르듯이,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도 교회를 통하여 양육 받을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칭찬만 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도 든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칭찬만 있고 매는 없는 교회가 되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과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심방을 통하여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칼빈은 지역을 맡은 장로들로 하여금 심방을 하여 교인들의 삶을 살피게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교인을 제네바의회에서 처리 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추방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¹²²⁾

전체 인구의 20%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비율에 비하여 영향력이 너무도 적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고 교인이 교인다워져야 하는데, 여기에 심방이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심방의 패러다임이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교회가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를 좀더 깊이 연구하고, 또한 한국초대교회의 심방이 성도들에게 준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여, 정체된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고 성장을 하는데,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 결국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말씀과 성례전과 더불어 훈련으로서의 심방의 역할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견고한 믿음의 성읍으로서의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연구를 마친다.

121) Inst, IV. 1:4

122) 이종성, *op. cit.*, 46.

참 고 문 헌

- 고영민. 『성서원어 대사전』. 서울: 교문사, 1979.
- 곽안련. 『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96.
- 김기복. 『임상목회교육』. 서울: 전망사, 1993.
-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4.
- 김영한. “가상공간에 대한 신학적 진단.” 『목회와 신학』. 통권 104호 (1998. 2): 43-49.
- 김용호. “심방과 목회.” 『목회와 신학』. 통권 16호 (1990. 10):
- 김재성. “목회사역과 성령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목회적 교훈들.” 『신학정론』. 통권 25호 (1995. 봄): 345-346.
- _____.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수원: 합동 신학대학원 출판부, 1997.
- 김충남.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생애』. 서울: 백함출판사, 1971.
- 김희보. “목회자로서의 칼빈(上).” 『파수군』. 통권 148호 (1964): 13.
- _____. “목회자로서의 칼빈(中).” 『파수군』. 통권 149호 (1964): 18.
- _____. “목회자로서의 칼빈(下).” 『파수군』. 통권 150호 (1964): 14-15.
-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 박광철. “효과적인 구역운동을 위한 심방제도 개선.” 『목회와 신학』. 통권 88호 (1996. 10): 59-65.
- 박근원. 『교역의 전문화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출판부, 1985.
- _____. 『목회심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박명수. 『초기한국성결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서회, 2001.
- 박병호. “멀티미디어의 실제.” 『목회와 신학』. 통권 79호 (1996. 1): 86-94.

- 박정환. "교회에서의 심방의 역할과 심방 지도자론." 호남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백낙준. 『한국개신교회사』.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73.
- 양창삼. "인터넷 교회, 인터넷 교인시대의 목회." 『목회와 신학』. 통권 88호 (1996. 10): 66-76.
- 오윤표. 『심방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9.
- 이근삼.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 이만열. 『한국기독교수용사』. 서울: 두레시대, 1998.
- 이상운. 『목회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이영헌.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0.
- 이종성. 『칼빈』. 서울: 장로회 총회교육부, 1983.
- 이창근. 『한국사회와 종교』. 서울: 도서출판 엘맨, 1990.
-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이호운. 『한국교회초기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 전종근. "심방이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월간목회』. 통권 164호 (1990. 4): 259-320.
- 정정숙. "한국신학대학원의 상담교육 연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근삼 박사 사역 50주년 기념논집-』. 서울: 총회출판국, 2002.
-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 전래』.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8.
- 주선애. 『장로교여성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1978.
- 주인정. 『현대목회심방』. 서울: 교문사, 1984.
- 채기은. 『한국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한국칼빈학회. 『칼빈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한기원. "현대도시교인들은 왜 심방을 기피하고 있는가." 『월간목회』. 통권 35호

(1979. 7): 20-24.

한재호. “이상적인 심방대원 편성.” 『월간목회』. 통권 35호 (1979. 7): 25-29.

한학수. “한국교회 행정의 발전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학위논문, 1985.

허순길. “한국교회 장로직제, 왜 문제가 되는가.” 『목회와 신학』, 통권 65호
(1994. 11): 59.

_____.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 서울: 총회출판국, 1994.

황성철. “전통적 구역제도의 기여와 한계.” 『목회와 신학』. 통권 83호 (1996. 5):
52-58.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서울교회를 차져서 중앙교회.” 『기독신보』. 1927. 11. 23.

“목회도 인터넷시대.” 『디지털 성결신문』. 2000. 7. 1.일.

“인터넷 심방. 교인관리 ‘시대적필요.’” 『기독교연합신문』. 2002. 4. 21: 5.

공종은. “난 ‘상당하는 목회자’인가.” 『기독교연합신문』. 2002. 5. 19: 5.

“지구촌교회 ‘상당 봉사자’로 상당실 운영.” 『기독교연합신문』. 2002. 5. 19: 5.

『서울노회의 역사』. 서울노회사편찬위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장로회 신학대학 70년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71.

『감리교와 신학대학사』. 감신대 79주년 기념.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1975.

『문창교회 100년사』. 문창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사월교회 100년사』. 박경환. 대구: 동아문화사, 1999.

『양림교회 90년사』. 차종순. 광주: 양림교회 90년사 편찬위원회, 1994.

『중앙교회 107년사』. 기독교대한 감리회 중앙교회 기획위원회. 서울: 1998.

『서현 90년사』. 광주서현교회 90년사 편찬위원회. 광주: 삼일인쇄사, 1998.

『노량진교회 90년사』. 노량진교회 9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

- 량진교회, 1996.
- “심방,”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1.
- 『예화대백과사전』. 제5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2.
-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4.
- 『민영환 목사의 녹취록』 (예장 고신 증경총회장, 서울강서교회 원로목사)
- 『이금도 목사의 녹취록』 (예장 고신 증경총회장, 제일문창교회 원로목사)
- Adams, J. E. 『성공적인 목회사역』, 정삼지 역.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9.
- Calvin, John. "The Genevan Confession", in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ed. by J.K.S. Reid, LCC.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4.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 Calvin, John. 『갈병의 요리문답』,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5.
- Calvin, John. 『신약성경주석(에베소서)』, 존 칼빈 성경주석 편찬위원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 Mrs. Thomas. "A Day in a Missionary Life" *The Way of Holiness*. February 1914. (미간행 일기)
- Niesel, Wilhelm.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Oden, Tomas. C. 『목회신학』, 오성춘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87.
- Paker, T.H.L. *Calvin*. Louisville, 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 Philip, E. Hughes. (ed. and tr.)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칼빈시대 제네바 목사회 회의록). Grand Rapids : Eerdmans, 1966.
- Schaff, Philip.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ol. 8. Modern Christian My the swiss reforma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michigan, 1985.

The Changes of the Paradigms of the Pastoral Visitation in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With Reference to John Calvin's Understanding of Pastoral Visitation

Yun, Eun-Su

Department of Theology,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Advisor: Prof. Jae-Buhm Hwang)

(Abstract)

This thesis attempts to study what have been the paradigms of the pastoral visitation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and how they have been changed. It also investigates John Calvin's paradigm of pastoral visitation to assess those of the Korean church. The thesis will also suggest what would be the best paradigm of pastoral visitation for the Korean church, seeing how it affects its revival and growth.

Chapter II, deals with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pastoral visitation. The term "visitation" has much to do with the verbs: to attend, to care and to tend. By visiting his church members at home, a pastor can take do many things to care of them: counseling, fellowship, spiritual support, comfort, encourage, healing and so on. In short, pastoral visitation is a good way of making a Christian a true Christian.

Chapter III, studies John Calvin's understanding of pastoral visitation. Calvin emphasizes the preaching of the Word, the ministering of sacraments, and the discipline in the church. He regards pastoral visitation as a way of an ecclesiastical discipline. The Genevan church in the time of John Calvin, therefore, elected the elders to visit their church members to check how the church affected them. For Calvin, pastoral visitation meant encour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church members, and it was a good means of a Christian discipline.

Chapter IV, investigates the paradigms of pastoral visitation in Korean church history. In its earlier years, the Korean church regarded pastoral visitatio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inisterial works: preaching to, taking care of, and advising its flock to live up to Word of God. While there was shortage of ordained pastors, pastoral visitation was carried out by lay leaders like elders and/or candidates for pastorship.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had a common visitation, which was carried out once or twice a year, and which has become today's model for the program of "Visit All of the Parishioners" (*taeshimbang*). This visitation did what John Calvin meant: taking care of, supervising, disciplining, and training the parishioners. But this paradigm of pastoral visitation was rapidly changed during the 1960s, as the Korean church did visitation through both telephone calls and counseling. So pastoral visitation was weakened especially in terms of supervising and disciplining and ending up checking who's who. This situation has been even more worsened as internet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widely used. So the Korean church is today experiencing a kind of crisis of pastoral visitation causing decrease in its membership.

Chapter V, suggests some ways to establish a new paradigm of pastoral visitation: First, the presbytery shall more intensively supervise its member churches. Second, the parishioners may use their pastor's weekly sermons as the text for their studies. Third, the elders may specialize in pastoral visitation. Fourth, the pastors may have a regular visitation schedule. Fifth, the lay leaders of parishioners may increase number and intensity of pastoral visitation. Sixth and last, the church may use cell or district activities as a pastoral visitation program.

Pastoral visitation now is not an option but an indispensable factor in ministry. For the main mission of pastors is both preaching the Word of God to their flock and taking care of them. Taking care of the flock does not mean merely checking where and how they live, training and disciplining them to live up to the Word of God. The Korean church may use Calvin's concept of pastoral visitation for its paradigm of pastoral visitation. In so doing, the Korean church may not only increase in its membership, but be a leader guiding the larger Korean society. We believe that our study makes a good contribution in figuring out a new paradigm of pastoral visitation for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심방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평가

- 존 칼빈의 심방에 대한 이해와 비교하여 -

윤 은 수

계명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지도교수 황 재 범)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사회의 변화를 따라 함께 변해 가는 한국교회의 목회심방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신학적 근간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해한 심방에 대한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칼빈이 이해한 심방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방의 패러다임을 진단하며, 한국교회의 올바른 심방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2장에서 나는 심방의 어원과 정의와 목적을 살펴보았다. 심방의 어원은 곧 “돌보다”라는 동사로부터 나온 말로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목회자가 심방을 통해서 교인과 만나 사귀어 갖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 그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심방인 것이다. 이 심방의 정의와 목적이 심방의 패러다임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

3장에서 나는 칼빈이 이해한 심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칼빈은 말씀과 성례전과 성도의 훈련을 강조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다. 그는 심방을 성도의 훈련의 수단으로 이해를 하였다. 그래서 구역마다 장로로 책임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였으며, 말씀이 제대로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심방단을 조직하여 구역의 목사와 성도들을 심방하기도 하였다. 칼빈이 이해한 심방은 권고와 감독을 통한 성도들의 신앙훈련의 방편이었던 것이다.

4장에서 나는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심방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초기의 심방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중의 하나였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귀하던 시절에는 장로와 영수와 조사들로 구성된 평신도들이 열심을 다하여 심방을 하였

으며, 일제시대 때는 일제심방이라고 하여 오늘날의 대심방과 같이 일년에 한, 두차례 정도 온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심방을 통하여 칼빈이 의도한 심방과 같이 교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권징도 행하며 훈련시켜 나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60년대를 지나오면서 전화의 대중적인 보급과 상담의 등장으로 심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서서히 감독과 훈련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갔고, 위로와 유고의 이유를 확인하는 정도의 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가는 형편이다. 그래서 가히 오늘날을 심방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심방의 위기가 한국교회 전체의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5장에서 나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심방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면서 바람직한 심방의 패러다임의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내용으로는 노회의 개체교회에 대한 감독권의 강화, 주일설교의 성경공부교재로의 활용, 장로의 돌봄의 사역의 확장, 정기적인 심방계획의 수립, 권사와 권찰의 심방강화, 구역예배를 통한 심방목회의 접목 등을 제시하였다.

심방은 목회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이다.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돌아봄은 그저 위로와 유고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으로 성도들을 말씀대로 살도록 감독하고, 훈련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심방의 변화를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한국교회는 칼빈이 이해한 심방의 개념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적용하여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개혁의 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천만의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실질적으로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그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목회자는 바람직한 심방의 패러다임을 형성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교회가 바람직한 심방의 패러다임을 결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